

서문



국제저널 『무형유산』 9호의 발간을 맞이하여 지면을 통해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저널 『무형유산』은 그동안 무형유산 분야에서 의미있고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장으로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저는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수고를 감내하고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알리산드라 커밍스 편집장 이하 편집자문위원들의 노고입니다.

21세기의 박물관들은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 유물의 수집, 전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유·무형이 조화를 이루어 유물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까지 도출해 내서 박물관 이용자들이 풍성한 내용을 이해하고 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형과 유형 문화는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무형유산은 집단과 개인의 문화적인 특성과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에 문화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갈등을 해소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널에 수록된 논문은 무형유산의 조사·연구·보존·전승·진흥·교육·자연환경(기후)·문화적 공간 등 폭넓은 주제로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형유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우수한 논문들이 국제저널에 탑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형유산, 즉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은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국제저널 『무형유산』 10호는 특별한 호인만큼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학회와 국제기구, 연구자, 대학교 등 많은 기관에 홍보를 널리 하여 많은 연구자와 학자들의 수준 높은 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무형유산을 연구, 조사한 연구자의 논문들이 실릴 수 있도록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발행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9호에는 13명의 뛰어난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쓴 11편의 연구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통한 무형유산 보호의 가능성, 무형유산의 관광에 주목한 알타이-카자흐 지방에서의 검독수리 축제, 수아킨 항구가 지닌 무형유산적 가치, 바레인의 농경사회에서 물 공급의 구전 전통 지식체계,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형유산 보호정책의 발전 등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독자들이 접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활발한 담론을 촉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하여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공표와 2004년 국제박물관협회(ICOM) 서울 총회 개최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형유산의 국제적인 조사, 연구, 보호, 전승을 위한 전문적인 학술 저널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속조사를 통해 사라져가고 있는 민속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많은 민속자료를 박물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무형유산은 당대의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고자 하는 이전 세대의 노력, 열정 및 참여를 통해 전달되고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 우리관은 조사, 연구, 교육 및 전시 분야에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탐구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제저널 『무형유산』은 국제사회과학문헌목록(IBSS), 예술 및 인문학논문 인용색인(A&H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스코푸스(Scopus), MLAIB 및 BAS에 등재되는 등 전문 학술지로 자리를 잡아가며 인지도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논문을 투고 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되는 이 서문의 발행인으로 저널발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꺼이 논문을 기고해주신 모든 저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문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논문의 교정을 맡아주신 파멜라 인더 박사님, 그리고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저자들과 연락하며 논문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알리산드라 커밍스 편집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널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